

단군[檀君] 우리 민족의 시조



단군 표준영정

/ 진통문화포털(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정보원) /

1 개요

단군은 우리 민족의 시조로 간주되고 있으며, 단군신화에 그 면모가 잘 드러나 있다. 조선시대의 기록에도 단군에 관한 내용은 적지 않게 수록되어 있다.

2 『삼국유사』에 기록된 단군신화

단군에 대해서 설명할 때 가장 기본적으로 이용되는 자료는 『삼국유사』에 실린 단군신화이다. 『삼국유사』는 고려 후기 충렬왕 7년(1281년)에 승려 일연(一然)이 편찬한 사서로서, 『삼국사기』에 실리지 않은 설화와 불교 관련 내용들이 다수 기록되어 있다. 『삼국유사』에서 기록하고 있는 단군신화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천신 환인(桓因)의 아들 환웅(桓雄)이 천상으로부터 태백산(太白山) 신단수(神檀樹) 아래로 내려와 신시(神市)를 건설하였으며, 풍백(風伯)·우사(雨師)·운사(雲師)를 거느리고 신정(神政)을 펼쳤다. 이때 곰과 호랑이가 환웅에게 인간이 되게 해달라고 기원했고, 환웅이 알려준 방법을 잘 따른 곰은 인간의 여자(웅녀)로 변신하였다. 웅녀가 다시 아이를 낳게 해달라고 빌자, 환웅은 웅녀와 혼인하였고, 웅녀는 단군왕검(檀君王儉)을 낳았다. 단군왕검은 중국의 요 임금 재위 50년에 평양성에서 조선을 건국하였고, 후에 도읍을 백악산(白岳山) 아사달(阿斯達)로 옮겼다. 재위 1500년경에 중국에서 기자(箕子)가 오자, 장당경(藏唐京)으로 천도하였고, 1908세가 되어 산신이 되었다. [관련사료](#)

그런데 『삼국사기』에는 단군에 대한 기록이 남아 있지 않아서, 『삼국유사』에 실린 단군신화가 고조선대에 형성된 것이 아니라, 후대에 만들어진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 단군의 할아버지라 하는 '환인'은 산스크리트어의 'Sakrodevanam Indrah'라는 말을 한자로 표현한 '석제환인(釋帝桓因)'과 같은 말에서 그 어원을 찾을 수 있으며, 불교의 여러 신 중 하나에 해당한다. 그런데 불교가 한반도에 전해진 것은 4세기 이후이다. 또 풍백·우사·운사 등은 도교와 관련된 표현인데, 도교 역시 불교와 비슷한 시기에 전해졌다. 따라서 불교 및 도교와 관련된 표현이 사용된 단군신화는 적어도 한반도에 불교와 도교가 유입된 이후에 형성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신화는 만들어진 후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오다가 어느 시기에 문자로 정착한다. 그러면서 문자화된 그 시기의 용어와 표현 양식이 신화에 남게 된다. 따라서 후대의 표현이 사용되었다고 해서 신화 자체가 뒷 시기의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중요한 것은 단군신화에서 하늘신의 아들인 환웅이 지상으